

# 청소년의 휴대전화 과의존이 성인매체 몰입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 :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 Converged Influence of Adolescent' Dependence on mobile phon on Adult Media Immersion: Mediating Effects of Parent's Neglecting Attitude

김진웅<sup>1</sup>, 김주현<sup>2\*</sup>

Jin Woong Kim<sup>1</sup>, Ju Hyun Kim<sup>2\*</sup>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융복합시대에 청소년의 휴대전화 과의존이 성인용 매체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두 변인 간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제6차(2015년)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중1패널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휴대전화 과의존과 성인매체 몰입의 관계에서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Baron & Kenny의 분석방 법을 활용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휴대전화 과의존이 증가할수록 성인매체 몰입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는 성인매체 몰입을 부분 매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대상 성인용 매체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건강한 성개념 형성을 위해 가정 내 부모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의 성인매체 접근을 제한하는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핵심어 : 휴대전화 과의존, 성인 매체 몰입,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 매개효과 분석 방법, 청소년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a Adolescent's Dependence on mobile phon affects an Adult Media Immersion and Parent's Neglecting Attitude has a mediating effect. For the purpose,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panel of 'the 6th(2015)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KCYPS)' was utiliz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s Neglecting Attitud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olescent' Dependence on mobile phon by Adolescents and the Adult Media Immersion, Baron & Kenny's mediating effect analysis method was conducted and the analytical findings are shown below. According to the study, first of all, more Adolescent' Dependence on mobile phon rise to rise the Adult Media Immersion. Second, the Parent's Neglecting Attitude partly mediates the Adult Media Immersion.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results are below : First, an adult media education for an adolescent is desired. Second, parents' care and affection inside a home is necessary to formulate the healthy sexual concept of adolescent. Third, Revision of relevant laws limiting access to adult media is necessary.

Keyword : Dependence on mobile phon, Adult Media Immersion, Parent's Neglecting Attitude, mediating effect analysis method, Adolescents

1 Department Social Welfare, University of Seoul, Seoul, Korea [Graduate Student]  
e-mail: 7461817@naver.com

2 Department Social Welfare, Kyunghee Cyber University, Seoul, Korea [Professor]  
e-mail: jhkim417@khcu.ac.kr (Corresponding author)

\* 이 논문은 2018년도 경희사이버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한 결과임.

Received(August 28, 2019), Revised(November 7, 2019), Accepted(December 9, 2019)

## 1. 서론

한국의 휴대전화 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조사기관인 'Pew Research Center'의 발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국 중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4%로 1위를 차지했으며 [1],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휴대전화 보유 현황으로는 1명당 1대 수준이다 [2]. 이처럼 한국 청소년의 휴대전화 보유의 일반화 현상으로 인해 빚어지는 다양한 문제의 원인을 지적한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으며, 청소년기의 중독 취약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3].

최근 청소년은 일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휴대전화 사용에 집중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4]. 이와 같은 청소년의 휴대전화 몰입 태도는 사이버 공간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만족감과 쾌감에 도취되게 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상호작용하는 또래관계, 부모-자녀관계, 교사-학생관계 등에서 부적응하게 한다. 또한 오랜 시간 바르지 못한 자세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척추측만증과 같은 신체화 증세를 나타내고 이로 인한 성장장애를 겪고, 자극적 요소에만 반응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팝콘 브레인 현상 등이 나타난다 [5].

청소년의 휴대전화 과의존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로 각종 성인매체에 습관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019년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최근 1년간 성인매체에 노출된 적이 있는 초·중·고등학생의 비중은 2018년 기준 39.4% [6]이다. 청소년의 성인매체 노출 빈도는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차원을 떠나 휴대전화의 보유율의 보편화 추세, 낮은 접근성과 더불어 무분별한 인터넷 사용 행태와에 의해 증가하고 있다 [2][7].

이는 청소년기 발달 특성상 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성 관련 정체감이 세워지는 시기임과 동시에 발달 주기에 따른 생리적인 변화를 겪게 됨에 따라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8]. 만일 청소년이 습관적으로 성인매체를 접한다면 성에 대한 몰이해가 형성될 수 있고 비정상적 태도를 나타내며, 성매매, 성폭력과 같은 성행동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9][10].

청소년기는 아동과 성인 사이에 놓여 있는 모호한 과정을 지나는 중이며, 성인기를 준비하는 시기로서 아동기와는 비교적으로 부모에 대한 의존도성이 약해진다. 이때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 심리·정서·사회적 발달 측면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11]. 바람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을 이룩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또한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자녀의 전인적 발달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며, 결과적으로 자녀의 일탈과 비행은 촉진하게 함으로써 범죄행위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일탈과 비행은 부모의 적절하지 못한 양육행동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12].

이처럼 부모의 역할은 중요하다. 실제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성인매체 몰입 관련 영향을

검증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무관심으로 자녀의 인터넷 과다사용을 방지할 경우 [13], 반대로 부모의 통제방식과 양육태도가 강압적일 경우 [14], 일관되지 못하고 과잉 간섭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지속될 경우 [15], 청소년 자녀에 대한 무관심한 양육방식을 고수하고 방임을 하여 관계가 좋지 못할 경우 [14][16]에 청소년들이 유해매체에 중독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외 휴대전화 과사용이 성인 매체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연구 [17]가 있었으며, 우울이 휴대전화 과사용을 매개로 청소년의 성인매체 몰입에 미치는 영향 검증 [18]을 시도한 연구와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를 매개로 하여 성인 매체 몰입도를 매개효과를 통해 검증한 연구 [19]가 있었으나, 휴대전화 과의존이 성인매체 몰입에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문헌상으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문헌은 분절적으로 각 변인 간 영향을 살펴보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는 청소년의 성인매체 몰입에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치거나, 스마트폰 과의존과 청소년의 성인매체 몰입 간에 연관이 있다는 분절적이면서 단방향적인 분석에 그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서 융복합 시대 특징 중 하나인 청소년의 휴대전화 과의존은 성인매체 몰입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매개할 것이라고 보고 이를 심층적이면서 통합적으로 검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 진행을 위한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휴대전화 과의존은 성인매체 몰입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청소년의 휴대전화 과의존이 성인매체 몰입도의 관계에서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의 매개 효과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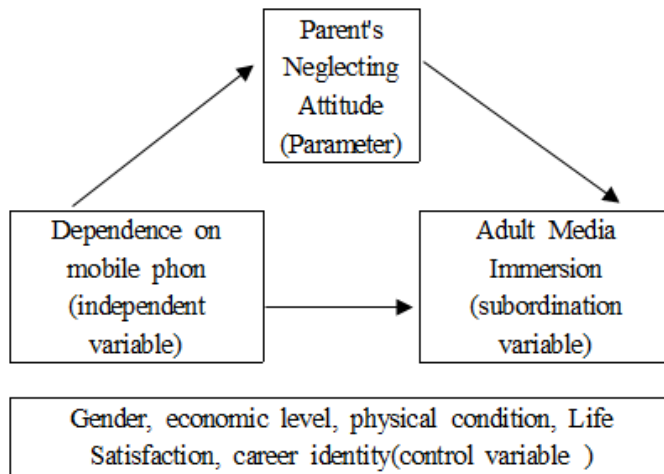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 진행을 위해 활용된 데이터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에서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다. KCYPS 자료는 다단계화 표집방법으로 모집단을 추출하여 2010년부터 시작해 총 7년에 걸쳐 추적조사를 통해 마련된 자료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된 6차 자료를 통해 결측치 및 성의가 없는 답변을 제외한 총 2,056명을 자료의 검증 대상으로 삼았다.

### 2.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과의존과 성인매체 과몰입의 관계에서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제시되었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Fig. research model

## 2.3 변수 정의 및 측정

### 2.3.1 독립변수: 휴대전화 과의존

휴대전화 의존도는 관련 선행연구에서 고안한 청소년 휴대전화 과다사용 행태 측정 도구 [20]를 이용했다. ‘휴대전화 없이 외출 시 불안하다.’ 등으로 구성된 7문항 4점 척도로 측정, 해당 문항을 역코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휴대전화 의존도 또한 상승한다. 도구 활용 당시 Cronbach’s  $\alpha$ 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65이었다.

### 2.3.2 종속변수: 성인매체 몰입

종속변수인 ‘성인 매체 몰입’은 관련 선행연구의 인터넷 중독 관련 문항 중 유해매체 관련 8문항 [21]을 활용하였으며, 모든 관련 문항은 총 4점 척도로 형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은 수준일수록 성인매체 몰입도 또한 높은 수준임을 의미하며, 이를 위하여 해당 문항을 역코딩한 후 분석에 임했다. Cronbach’s alpha는 .855로 나타났다.

### 2.3.3 매개변수: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

매개변수인 부모의 방임적 양육 태도는 관련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수를 활용하여 구성한 문항 중 방임의 4문항 [22]을 연구에 적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 척도 (1= ‘매우 그렇다부터’,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까지)로 역환산 되어있으나, 방임의 4문항도 마찬가지로 역환산 되어

있으므로 점수가 높으면 따라서 부모의 방임적 양육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에 모든 문항을 합산 평균화하여 활용하였다. 신뢰도 계수인 Chronbach's  $\alpha$  는 .701로 나타났다.

### 2.3.4 통제변수

성인매체 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경제 수준,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진로정체감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은 '0', 여학생은 '1', 값을, 경제 수준은 매우 못사는 편인 경우 '0', 못사는 편 '1', 약간 못사는 편 '2', 보통수준 '3', 약간 잘사는 편 '4', 잘사는 편은 '5'. 매우 잘산다는 '6' 값을 부여했다. 삶의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은 '0', 불만족은 '1', 만족은 '2', 매우 만족은 '3'의 값을 각각 부여했다. 진로정체감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0', 그렇지 않다는 '1', 그런 편이라는 '2', 매우 그렇다는 '3'을 부여했다.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하지 못한 경우에는 '0', 건강하지 못함은 '1', 건강한 편임은 '2', 매우 건강함은 '3'의 값을 을 부여했다

### 2.3.5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해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먼저 기초자료 파악 및 변수 간 관계성 확인을 위해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실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휴대전화 과의존과 성인매체 몰입 간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관련 문헌 [23]을 통해 매개효과 전제조건 확인한 후 매개분석 통계결과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결과는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2,056명 분석대상 중 남자의 비율은 1,041명으로 전체의 50.6%에 달하였고, 여자는 1,015명으로 전체의 49.4%로 확인됐다. 경제수준은 보통이 1,293명(62.9%), 다음으로 약간 잘사는 편이 272명(13.2%), 약간 못 사는 편이 256명(12.5%), 못사는 편이 118명(5.7%), 잘사는 편이 88명(4.3%), 매우 잘사는 편이 15명(0.7%), 마지막으로 매우 못사는 편이 14명(0.7%)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만족이 922명(44.8%), 다음으로 불만족이 833명(40.5%), 매우만족이 224명(10.9%), 매우불만족이 77명(3.8%)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의 경우는 형성된 편이 937명(45.5%), 다음으로 그렇지 않은 편이 911명(44.2%), 매우 그런 편이 162명(7.9%),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 46명(2.4%)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 1,248명(53.1%), 매우 건강한 편 650명(27.6%), 건강하지 못한 편 148명(6.3%),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 10명(4.0%)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alyzed

구분		합계 (명)	(%)
성별	남자	1,041	50.6
	여자	1,015	49.4
경제적 수준	매우 잘 산다	15	0.7
	잘사는 편이다	88	4.3
	약간 잘사는 편이다	272	13.2
	보통 수준이다	1,293	62.9
	약간 못사는 편이다	256	12.5
	못사는 편이다	118	5.7
	매우 못 산다	14	0.7
삶의 만족도	매우 만족스럽다	77	3.8
	만족스럽다	922	44.8
	불만족하다	833	40.5
	매우 불만족하다	224	10.9
진로정체감	매우 그렇다	162	7.9
	그런 편이다	937	45.5
	그렇지 않은 편이다	911	44.2
	전혀 그렇지 않다	46	2.4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650	27.6
	건강한 편이다	1,248	53.1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148	6.3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10	4

### 3.2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

[표 2]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Table 2] Th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

	1	2	3	4	5	6	7	8
<b>Dependence on mobile phon</b>	1							
<b>Adult Media Immersion</b>	.292**	1						
<b>Parent's Neglecting Attitude</b>	.148**	.182**	1					
<b>Gender</b>	.136**	-.135**	-.010	1				
<b>economic level</b>	-.036	-.003	-.136**	-.007	1			
<b>Life Satisfaction</b>	.172	-.158**	-.243**	-.116**	-.201**	1		
<b>career identity</b>	-.106**	-.069	.169**	-.004	.095*	.277**	1	
<b>physical condition</b>	-.078**	-.077	-.099**	-.095**	.132**	.303**	.089*	1

\*\*p<.01, \*p<.05

주요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와 건강상태( $r=.303, p<0.1$ ) 변인 간에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휴대전화 과의존과 성인매체 몰입( $r=.292, p<0.1$ )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삶의 만족도와 진로정체감( $r=.277, p<0.1$ ),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r=-.243, p<0.1$ ), 경제수준과 삶의 만족도( $r=-.201, p<0.1$ ),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진로정체감( $r=-.169, p<0.1$ ),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경제수준( $r=-.136, p<0.1$ ), 경제수준과 건강상태( $r=-.132, p<0.1$ ),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건강상태( $r=-.099, p<0.1$ ), 성별과 건강상태( $r=-.095, p<0.1$ )진로정체감과 건강상태( $r=-.089, p<0.5$ )간 유의한 상관관계는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 3.3 매개회귀분석 3단계 분석

휴대전화 과의존이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를 매개하여 성인매체 몰입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1 단계는 휴대전화 과의존이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에( $\beta = .111, p < .001$ )로 정적(+ )영향을 주었다.

2단계에서는 휴대전화 과의존이 성인매체 몰입도에( $\beta = .290, p < .001$ )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변인을 경로한 마지막 3단계에서도 휴대전화 과의존은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를 매개하여 성인매체 몰입도에( $\beta = .275, p < .001$ ) 영향을 주어 부분매개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으며, 본 연구의 구체적 매개회귀분석 내용은 [표 3]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확인 가능하다. 즉, 휴대전화 과의존은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를 매개하여 성인매체 몰입에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매개 회귀 분석

[Table 3]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휴대전화 과의존 →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 (1단계)		휴대전화 과의존 → 성인매체 몰입 (2단계)	
B	.346	B	.219
SE	.068	SE	.030
$\beta$	.111	$\beta$	.290
Tolerance	.952	Tolerance	.947
VIF	1.050	VIF	1.056
R <sup>2</sup>	.088	R <sup>2</sup>	.131
Adj. R-Sq	.085	Adj. R-Sq	.123
t	5.076	t	7.401
F	32.144***	F	15.021***

\*  $p < .05$ , \*\*  $p < .01$ , \*\*\*  $p < .001$

휴대전화 과의존 ·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 → 성인매체 몰입 (3단계)		
휴대전화 과의존	B	.207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		.030
휴대전화 과의존	SE	.030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		.009
휴대전화 과의존	$\beta$	.275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		.028
휴대전화 과의존	Tolerance	.932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		.947
휴대전화 과의존	VIF	1.072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		1.056
R <sup>2</sup>		.147
Adj. R-Sq		.137
t		7.002
F		14.619***

\* p<.05, \*\* <.p01. \*\*\* p<.001

### 3.4 매개효과 검증

지금까지 휴대전화 과의존이 청소년의 성인매체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매개회귀분석 3단계로 분석하였다.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서 본 단계에서는 매개효과의 Sobel-test를 진행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다.

Sobel-test는 독립변수로부터 매개변수로 향하는 경로를 a, 매개변수로부터 종속변수로 향하는 경로를 b라고 할 때 a\*b, 즉 c(총효과)-c'(직접효과)가 유의미한지 검증하는 절차이다 [24].

[표 4] 매개효과 검증

[Table 4]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Sobel-test		
매개효과 경로	Z score	매개 구분
휴대전화 과의존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성인매체 몰입	2.788	부분 매개

위 공식을 통해 마련된 값이 Z값인데 -1.96보다 작거나 +1.96보다 클 때 매개효과가 있다고 본다 [25]. 본 연구에서 도출된 Z값은 |Z|>1.96 이므로 부분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4. 결론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회귀분석과 매개효과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휴대전화 과의존이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를 매개로 성인매체 몰입도 간 관계를 검증하였으며, 분석 결과 휴대전화 과의존은 부

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를 매개하여 성인매체 몰입에 영향을 주어 부분매개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성인매체 몰입에 대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관련 정책 및 실천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실천적 함의와 관련해서는 초, 중,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휴대전화 과의존, 성인매체 몰입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교육, 치료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교사와 학교사회복지사와 같은 교내 기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휴대전화 과사용 정도와 부모자녀 관계 및 성인매체 노출 수준을 파악하고 개입하는 전문가 중심 서비스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성인매체 노출과 몰입의 원인은 단순히 휴대전화 과사용에 국한되거나 또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문제에서만 기인된 것이 아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 변인 모두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관련 유사연구 [14][17-20]와의 차별화를 둘 수 있었다.

이에 학교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통해 청소년 성인매체 노출 수준, 휴대전화 과사용 여부, 가족역동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문항과 FGI를 통해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군’으로 위험군을 분류해 집중 교육 및 관리가 선행되어야 하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 치료와 상담 개입이 원활히 진행됨에 따라 청소년을 성인매체를 포함한 유해매체 노출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다양하게 마련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거점화하여 청소년의 휴대전화 과의존, 성인매체 몰입 수준, 부모-자녀 관계를 파악하여 학교 및 시군구와 협업하여 사례관리를 실행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언급한 관련 기관들은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등의 전문가 집단이 배치되어 있고, 아동 청소년 사회서비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특성을 갖춘 조직인 점을 고려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부모-자녀 간 긍정적 관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국가의 정책·법률적 제도를 개선하여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는 기업문화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와 기업의 공동 노력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여가생활 지원을 도모할 뿐 아니라 기업 내 혹은 기업-지역사회 연계 하에 상담욕구가 있는 직원가정에 대한 부모-자녀의 관계회복을 위한 치료적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문 가족 상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로 청소년의 습관적이고 반복적 성인매체 접근은 청소년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며 [16-18],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 [10][11]가 도출되었다. 또한 부모와의 불화 및 부모의 잘못된 양육방식은 흉악범죄의 원인 [25]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부모-자녀 간 긍정적 관계 형성 촉진 및 회복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법률적 노력은 안전한 사회와 건전한 시민양성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미래사회 투자와 건설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노동자로 하여금 애사심을 형성하게 하고 국가로부터 다양한 연구정책개발 등의 지원을 받는 동시에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정보사회의 특성 및 디지털 기술 발전에 의한 사이버 상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OTT 플랫폼에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 다양한 변인에 의해 성인매체 노출정도와 부모-자녀관계의 변화를 고려하는 종단연구가 시도되지 못했으므로 이에 따른 방법론적 한계가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 변인을 협소하게 설정해 방임적 양육태도에 의한 영향만을 파악한 방향성의 설정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종단분석 시도와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성인매체 몰입 간 영향을 검증하는 시도가 필요하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보는 것을 제안한다.

## References

- [1] J. H. Kang, “[2018 MTS Grand Prize] Lee Sung-ho, standing member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novative Growth”, *asiae.co.kr*,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2311295402673>, (accessed July 21, 2019).
- [2] J. H. Kim, “[Series] ③ Youth gambling, 74.2 % of smartphone use, serious”, *pressian.com*,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22973&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22973&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accessed July 22, 2019).
- [3] H. J. Shaffer, D. A. LaPlanter, R. A. LaBrie, R. C. Kidman, A. N. Donato and M. V. Stanton, “Toward a syndrome model of addiction: Multiple expressions, common etiology”,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vol. 12, no. 1, December 2004, pp. 367-374, doi: 10.1080/10673220490905705.
- [4] S. J. Woo, “The Effects of Parental Abuse and Neglect, and Children’s Peer Attachment, on Mobile Phone Dependenc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51, no. 6, November 2013, pp. 583-590, doi: 10.6115/fer.2013.51.6.583.
- [5] M. S. Byeon, “The Influences of Personal, Family and School Variables on Smartphone Addiction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 the case of a potential at-risk user group and an at-risk user group”,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School of Education, Busa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2014. [Online]. <http://www.riss.kr.openlib.uos.ac.kr/link?id=T13391083>.
- [6] H. C. Lee, “[2019 Adolescents] One out of every five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s seen a video of ‘adult’”, *news1.kr*, <http://news1.kr/articles/?3610852>, (accessed July 22, 2019)
- [7] J. Wolak, K. Mitchell and D. Finkelhor, “Unwanted and Wanted Exposure to Online Pornography in a National Sample of Youth Internet Users”, *Pediatrics*, vol. 119, no. 2, February 2007, pp. 247-257, doi: 10.1542/peds.2006-1891.
- [8] S. Y. Park.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 program to perceive the harmfulness of cyber pornography”,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South Korea, 2014. [Online]. <http://www.riss.kr.openlib.uos.ac.kr/link?id=T8951640>.
- [9] M. A. Nam and B. S. Hong,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and Deviant Sexual Activities : Focusing on Mediated Effects of Perceptual Factor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9, no. 9, September 2012, pp. 93-124.
- [10] E. M. Alexy, A. W. Burgess and R. A. Prentky, “Pornography use as a risk marker for an aggressive pattern of behavior among sexually Reactive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iatric Nurses Association*, vol. 14, no. 6, January 2009, pp. 442-453, doi: 10.1177/1078390308327137.
- [11] N. R. Park and I. K. Jung, “The Influence of Parental Neglect and Overprotection on Youth’s Psychosocial Adjustment-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Private Tutoring”,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no. 37, March 2012, pp. 139-164.
- [12] Y. S. Park and A. N. Lim, “Impact of Perceived Parental Abuse on Adolescents’ X-rated Media Preoccupation: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The Correction Welfare Society of Korea*, no. 56, October 2018, pp. 1-27.

- [13] M. J. Cho, "The Effects of Adolescents' Depression, Anxiety, and Parents' Laissez-faire Parenting on Internet Addiction: Moderating Effects of Self-control",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vol. 10, no. 1, February 2012, pp. 15-25.
- [14] Y. O. Nam and S. J.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and Psychiatric Symptoms to Sexual Delinquency among Adolescents",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vol. 12, no. 1, January 2005, pp. 35-49.
- [15] S. J. Yang, "The Effects of Parenting and Peers on Pornography Media Engagemen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6, no. 8, July 2016, pp. 729-742, doi: 10.5392/JKCA.2016.16.08.729.
- [16] G. S. Mesch, "Social Bonds and Internet Pornographic Exposure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vol. 32, no. 3, August 2008, pp. 601-618, doi: 10.1016/j.adolescence.2008.06.004.
- [17] D. S. Jun, J. S. Lee and D. W. Kim. "Adolescent's mobile phone overuse and pornography addiction",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vol. 31, no. 1, March 2017, pp. 107-124, doi: 10.18398/kjlgas.2017.31.1.107.
- [18] H. J. Shim, H. M. Lee and H. S. Rhee, "Factors Influencing Adult Media Engagement of Adolescents from Micro-systemic Perspective : Mediation Analysis of Cell-Phone Dependency",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ol. 29, no. 2, August 2016, pp. 63-70, doi: 10.15434/kssh.2016.29.2.63.
- [19] O. S. Kim and H. Y. Choi. "Impact of Maltreatment Experience from Parents on Adolescents' X-rated Media Preoccupation: The Mediating Effect of Mobile Phone Dependency and Aggression",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 37, March 2017, pp. 1-23.
- [20] E. J. Lee, "Comparison of Factors related to Smartphone Dependency among Middle School,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 Seventh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 25, no. 2, January 2019, pp. 165-174, doi: 10.4094/chnr.2019.25.2.165.
- [21] E. J. Kim, S. Y. Lee and S. G. Oh, "The Validation of Korean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Scale(K-AIA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22, no. 1, February 2013, pp. 125-139.
- [22] M. Y. Huh,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ventory for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Korea Youth Counselling & Welfare Institute*. vol. 12, no. 2, December 2004, pp. 170-189.
- [23]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p. 1173-1182, December 1986, doi: 10.1037/0022-3514.51.6.1173.
- [24] T. G. Kim, *U-can regression analysis, Human&Welfare*, 2006.
- [25] J. H. Park, "The 'good growth' of Adolescents", [http://www.gwangnam.co.kr](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60407840329242129),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60407840329242129>, (accessed July 29, 2019).